

“공예 산업화... 브랜드로 인정 받는 시대 와야죠”

‘서암전통문화대상’ 수상 최석현 광주시 나전칠기 공예명장



▶ 최석현 공예명장이 운영하는 ‘갤러리 늘’에 전시된 손거울 등 나전칠기 용품.



“생산 급급 합성 도료 첨가 쇠퇴의 길 요즘 버마산 소리 빛깔 맑아 가장 인기”

1972년 입문...한국예총 명인 등 획득 한때 수십명 데리고 공방 운영 하기도 양림동서 매달 두차례 체험 프로그램 광주·서울 시연회 등 저변 확대 노력



‘나전칠기 짓가락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광주시 남구 양림동에 위치한 ‘갤러리 늘’.

“공예인은 집중과 꾸준함이 필요해요. 삶이 힘들고 찾는 사람이 없더라도 계속 공방을 운영해야 하죠. 언젠가는 공예가 각광 받아 문화적병 역할을 할 날이 올겁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양림동을 걷다보면 전통 공예 전시장 ‘갤러리 늘’을 만날 수 있다. 세련된 걸 모습으로 인해 처음 봤을 땐 최근 만들어진 카페로 착각할 수 있지만 내부에는 각종 전통 옷칠 작품이 진열돼 있다. 서랍장, 쟁반, 그릇, 컵 등 신비한 빛을 뿜어내는 작품들은 최석현(59) 광주시 나전칠기 공예명장 솜씨다.

최 명장은 지난 6일 서암문화재단(이사장 권영열)이 수여하는 ‘제6회 서암전통문화대상’ 전통공예 분야(상금 3000만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그동안 공예 행사, 강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중요 문화재 보수작업과 광주 신창동 칠기 유휴 원형 재현에 참여하는 등으로 옷칠분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 받았다.

지난 14일 만난 최 명장은 “점점 쇠퇴해가는 공예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이런 상을 계기로 공예 저변확대에 더욱 노력하고 상급공예인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완도 조그만 섬마을(남도)에서 태어난 그는 1972년 나전칠기에 입문한 이래 인생 대부분 손에서 옷칠이 마를 날이 없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옷칠에 종사하던 부산 작은 아버지대를 찾아갔어요. 기술을 배우서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덕분에 이렇게 공예 명장이 됐으니 친척에게 옷칠을 배운 게 지금 생각해보면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자개는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다르다. 최 명장은 사람 시선까지 고려해 문양을 고안하고 조개 껍질을 붙여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또 나라별로 다른 조개껍데기도 작품에 따라 신중하게 고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표면이 거칠어 다양한 색이 나오는 반면 일본, 동남아 지역은 반들반들해 깔끔한 색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가장 빛깔이 맑고 화려해 비싼 미얀마산 소리(고동)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군은살이 박힌 최 명장 손은 자신있게 작업을 설명할 수 있기까지 수많은 연습과 노력을 거쳤음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그 결과 한국관광상품 인증(2010), 한국예총 명인(2013), 광주시 나전칠기 공예명장(2015) 등 칠기 분야에서 국내 권위자로 꼽힌다.

지난 1986년 양림동에 자리잡은 그는 한때 수십명을 데리고 공방을 운영하기도 했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나전칠기가 대중화 되면서 배우려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전통과 기술은 뒷전인 채 생산에만 급급하다 보니 점점 인식이 안 좋아지고 쇠퇴하게 됐다.

“지금은 3.75kg에 300만원인 천연 옷 원료보다 훨씬 싼 카슈(합성 도료)를 많이 사용해요. 전통기법을 따르는 나전칠기를 ‘나전옷칠’로 구분해서 불러야 되는 이유죠.”

또한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길게는 몇달씩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작업해야하는 힘든 환경에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나갔다. 최 명장도 지난 2013년 목디스크가 찾아와 작업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려했던 적이 있었다.

“작업을 시작하면 한나절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게 기본이죠. 한번은 프랑스를 다녀오는데 열시간이 넘도록 비행기에서 일어나지 않자 다른 공예인들이 놀라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아닌데 말이죠.”

더 이상 두고보다가는 대가 끊기겠다고 우려한 최 명장은 공예 저변확대에 뛰어들었다. 일단 관심을 끌어야 된다는 생각에 지난 2012년 ‘갤러리 늘’을 열어 작품 전시와 함께 매달 두차례 ‘나전칠기 짓가락만들기’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서울 등에서 시연행사도 꾸준히 개최하고 매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강의로도 나간다.

또 제자 5명에게 기술을 전수해 후학을 양성하고 지역 공예인들과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2007년 광주공예협동조합 초대 이사장을 맡은 데 이어 2011년 빛고을공예장작촌(남구 양과동)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해부터는 양림동주민자치위원장을 맡아 근대문화와 공예를 접목시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조성에도 자원역할로 참여하고 있다.

“지금은 공예가 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지만 산업화가 이뤄져야 해요. 여러명이 작업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기술을 배우게 되고 전통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유럽처럼 장인이 브랜드로서 인정받는 시대가 오겠죠.” /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로터스갤러리 내달 2일까지 이재호 개인전



▶ ‘기도’

2016년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이재호 작가가 8월2일까지 ‘알 수 없는 가치(기도)’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이 작가는 다종이와 금박을 이용한 조소작품 ‘알 수 없는 가치’시리즈를 선보인다. 얼굴이나 손을 본 떠 닥종이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다. 다종이는 퍼즐 문양이 새겨져 마치 여러 퍼즐 조각을 조합한 듯한 인상을 준다.

두 손이 맞닿은 모습을 형상화한 ‘기도’ 작품은 관람객들에게 여러 해석을 낳게 한다. 어떤 이는 행복을 위해, 어떤 이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도한다.

각자 목적은 다르지만 결국 기도를 하는 모습을 똑같다. 작가는 기도 의미와 가치를 작품에 담아 ‘알 수 없는 가치’가 이뤄질길 간절히 기원한다.

특히 작가는 이번 전시 출품작들이 판매되면 일부는 기부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이 작품에서 느낀 감동을 다른 사람과 나누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이재호는 ‘객원’(2013), ‘알 수 없는 표정-나의 이야기’(2014) 등 개인전을 가졌다. 현재 선목회, 예술 검객, 조상화&보존수복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383-0108. / 김홍희기자 kimhy@



광주시립극단 ‘뮤지컬 전우치’ 경주 공연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개막작 무대 뜨거운 호응

광주시립극단(예술감독 박운모) ‘뮤지컬 전우치’가 지난 15일 ‘제7회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 in 경주’ 개막작으로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됐다.

지난 6월 광주금남공원 야외무대에서 총 10회 공연, 5000여 명의 누적관객을 기록한 ‘전우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경주 공연을 가졌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야외에서 대극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유료 공연으로 전환했음에도 1000여명의 관객이 객석을 가득 메우며 큰 인기를 모았다.

대한민국 국공립극단 페스티벌은 광주를 비롯해 경기, 대구, 부산, 강원, 전주, 광주, 순천, 목포 등 총 9개 국공립극단이 참여해 오는 31일까지 각 지역의 특색을 담은 연극을 선보이는 행사다.

광주시립극단은 이번 경주 공연을 끝으로 ‘전우치 시즌4’를 마무리하고 내년 여름 수정·보완 작업을 거친 후 다시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국립아시아문화의 전당 축과 공동제작을 논의하고 있으며 대구뮤지컬페스티벌 참가도 타진중이다. / 김미연기자 mekim@

매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낭송 콘서트

시·음악·연주와 함께하는 금남로 연가

- ◆ 일시 | 2016년 7월 27일 오후6시
-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 주관 | 광주 서구문화원(기획:김정희 시인)

☎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예술 꿈나무들의 큰잔치

6 호남예술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전국대회

최고상 발표회 & 시상식

일시 2016. 7. 23(토) 오후4시~ 장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예술꿈나무들의 발표회!

광주일보사와 (사)아시아문화가 주최한 전통의 종합예술대전 ‘제61회 호남예술제’가 뜨거운 성원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최고의 기량을 선보인 각 부문 개인과 단체 최고상 수상자들을 초청, 작품 발표회를 갖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라하며 문화예술의 터전을 가꿔줄 미래의 스타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호남예술제 출신 선배들의 축하 공연!

호남예술제를 통해 발굴되고 육성되었던 선배들의 축하 공연이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미래의 예술 꿈나무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선배들의 축하공연을 함께 구성하여 풍성하고 유익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주최 **광주일보·(사)아시아문화** 후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문의 062.220.0541

http://art.kjmedia.co.kr